

■ 주간 증시 포커스

중소형주 상승에 상승종목 급증
기업 실적 발표따라 변동성 확대
미·일·EU 등 선진국도 상승세
유진, 상반기 지수 목표치 2940

코스피지수가 26일 2574.7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연방정부 섣달과 외국인 대주주 양도 세 강화논란으로 주 초반 하락했지만 섣달은 종로소식과 SK하이닉스의 호실적 발표로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실적호전 기대로 증권업종이 7.28% 상승하고 원자재 및 기계업종 등 그동안 상승세가 부진했던 업종으로도 순환매가 나타났다. 코스닥지수도 KRX300 지수 발표를 앞두고 최근 2주간 1조원이 넘는 기관순매수에 힘입어 15년 10개월만에 913.12포인트로 올라섰다.
지난 연말·연초에는 제약·바이오주 중심의 시가총액 상위종목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KRX300 편입이 기대되는 중형주와 2018년 실적 레밸업 가능성이 부각되는 중소형주로 상승세가 확산되며 상승종목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시즌을 맞아 실적발표에 따라 종목별 등락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사상최대실적을 경신했던 SK하이닉스는 발표당일 5%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16년 4분기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현대모비스는 8%넘게 하락했다.

이번주에도 기업별 실적발표에 따라 해당기업의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글로벌증시의 상승과 외국인 및 기관의 유동성확대에 따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상승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0일 예정된 트럼프정부 신년연설에서 인프라투자, 무역재협상, 북핵이슈, 금융규제완화 등 올해 주요핵심 발표에 관심이 필요하며 이달 31일 FOMC통화정책회의는 2월 3일 열린 회의의 임기가 종료되고 파월의장이 취임함에 따라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EU와 일본 등 선진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끌며 코스피지수 상반기상승목표치로 294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 IT가 상승을 주도했다면 2018년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며 코스닥과 코스피지수 중소형주로 상승종목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월 5일 KRX300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기관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KRX300지수 선결과 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시점까지 중소형주에 적극적인 관심 필요에 보인다.



정 세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이사대우〉

김영란법 개정 첫 설...농산물 선물세트 확대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내달부터 10대 성수품 공급 확대
과일값 30%·한우·돼지·닭 온라인 판매 최대 40% 할인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은 축산물 중심의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25일부터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10대 성수품 8035t씩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이 규모는 평시 5706t 대비 1.4배 규모다.

정부 비축·농협계약재배 채소·과일물량을, 농협 도축·단체 회원 보유 축산물량을, 산림조합 보유 임산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이 가운데 축산물의 경우 하루 공급량(4개 축종 공급량 합계)이 약 5654t 정도로, 지난해 대비 21.4%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2584개소를 개설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TV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직

거래채널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과로 구성된 과일세트 5만개가 농협계통매장,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에서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구이용·국거리, 불고기·장조림용 등으로 구성된 소포장·실속형의 10만원 이하 한우선물세트 2만4000개·국거리용 등 주요 부위 제품을 '한우 114몰'에서 할인 판매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온라인에서 할인 공급하는 한편 임산물을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장 등에서 최대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이 50% 넘게 포함된 가공품에 한해 선물비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선물용 농축산물에 청탁금지법 가격 한도 이내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100만 장을 유통업체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KTX, 버스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청탁금지법 가격기준 조정 내용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서비스 혜택 통합 'NH농협카드' 출시

농협전남본부 1호 가입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8일 삼향농협(조합장 나용식) 객장에서 NH농협카드 신상품 'NH농협카드' 출시홍보와 카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 1호 가입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NH농협카드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콕콕 뽑아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농업인 필수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신용(체크)카드', '면세구매카드', '농업경영체 인증카드'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했으나 NH농협 카드는 1장

으로 농업 관련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사기에 취약한 농민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도 접목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금융안전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액의 0.05%, 체크카드 이용액의 0.02%를 적립한 기금으로, 올 연말까지 가입한 농민들은 누구나 이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태선 본부장은 "NH농협카드가 농업인들의 대표적인 농심(農心) 카드상품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논·밭 직불금 신청하세요 내달 1일~4월20일

전남도는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비롯한 쌀농업·조건불리직불금의 농가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2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발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액은 ha(3000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중 지급된다.

발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경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ha당 농지는 60만 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왼쪽 네번째), 장경순 조달청 차장(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하도급 문화개선' 앞장

조달청과 MOU...상품권 구매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6일 나주 본사에서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통문화상품 구매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란 원도급자의 부당한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연 등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하수급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며,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은 수급자 계좌로 지급된다.

현장 근로자들은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앱을 통해 대금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조달청은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시스템 활용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전통문화상품 구매 등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송빌딩
Tel. (062) 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유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